

카드사 CEO 간담회 모두말씀 참고자료

1. 인사 말씀

- ☐ 안녕하십니까.
- ☐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여전 협회 회장님과 카드사 CEO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2. 카드수수료 개편정책에 대한 이해와 협조에 감사

- ☐ 먼저, 지난 '18.11월에 발표하여 금년 1월부터 시행된 「카드 수수료 개편안」 마련과 정책추진 과정에서
 - 카드업계가 발휘해주신 이해와 협조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☐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은 현행 여전법상의 적격비용을 기초로 한 카드수수료 산정체계와 영세·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 적용 원칙에 따라 3년 주기에 맞추어 실시한 것이었지만
 - 그 과정에서 카드업계 여러분들의 인내와 배려가 함께 하였기에
 - 우리 사회의 약자에 해당하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,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.
- ☐ 카드업계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고객인 중소상공인들을 비롯한 262만 여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신용카드 가맹점들이
 - 금번 수수료 개편에 힘입은 희생과 성장을 통해 카드업계에 매출과 수익 증대로 보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

□ 모쪼록 카드업계와 가맹점들이 서로가 상생관계에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

○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길에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.

□ 다만,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른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편에 따라 카드수수료가 인상통보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의 수수료 협상이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

○ 정부와 시장참가자 모두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불공정·불합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카드수수료 관행을 바로 잡는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.

3. 신용카드 산업의 현주소

□ 그간 우리 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신용카드 이용액도 꾸준히 증가하여 민간소비지출의 70%를 상회하는 지배적인 지급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

○ 이는 의무수납제('87년 도입), 신용카드 소득공제('99년 도입),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('00~'06년) 등 거래편의와 세원 양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도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.

< 신용카드 이용액 추이 >

연도	2010	2011	2012	2013	2014	2015	2016	2017
신용카드 이용액(조원)	412.1	441.8	478.0	488.7	500.5	534.9	596.0	627.3
민간소비지출 중 신용카드비중	55.0%	58.7%	63.8%	60.7%	60.7%	63.6%	69.3%	70.3%
경제성장률(A)	6.5%	3.7%	2.3%	2.9%	3.3%	2.8%	2.9%	3.1%
신용카드 이용액 증가율(B)	9.5%	7.2%	8.2%	2.2%	2.4%	6.9%	11.4%	5.3%
B/A	1.5	1.9	3.6	0.8	0.7	2.5	3.9	1.7

□ 그러나, 최근 핀테크 혁신 기업들의 모바일 직불결제 등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속속 출현함에 따라

- 카드사도 기존의 신용카드 결제망을 통한 렌트추구에 더 이상 안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.

4.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

□ 지각변동과 같은 변화를 몰고 오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조류 속에서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부단한 진화와 혁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

- 현재와 같은 위기와 기회의 갈림길에서 현명한 선택은 카드 산업을 건전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.

□ 카드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익원을 다원화하고 비용을 효율화해야 할 것입니다.

- 카드사는 카드회원의 소비 및 결제정보와 가맹점의 매출정보 등 다양한 빅데이터를 보유한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고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- 정부도 입법노력 등을 통해 카드사의 신산업 진출*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, 영업행위 관련 규제합리화**를 통해 카드사의 비용절감을 유도해 나갈 예정입니다.

* My Data사업,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, 빅데이터 제공·컨설팅업무 등

**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, 무실적 카드 갱신·대체발급시 동의채널 확대 등

□ 특히, 카드사간 외형확대 경쟁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.

- 그동안 과도한 마케팅비용*이 카드산업 생태계에 거품을 만들어 내면서 카드사의 수익성과 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는 만큼

* ('15년) 4.8조원 → ('16년) 5.3조원 → ('17년) 6.1조원 → ('18년) 6.7조원

* 마케팅비용/가맹점수수료 : ('15년) 45% → ('16년) 48% → ('17년) 52% → ('18년) 55%

- 카드업계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영업관행에 대한 냉철한 반성과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, 정부도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*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.

* 대형가맹점·법인회원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제한, 카드상품 사전 수익성 분석 강화 등

- 그리고 기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감축은 카드사 수익개선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는 만큼,
- 금융당국과 업계가 좀 더 지혜를 모아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.

5. 당부의 말씀

- 카드업계가 예전과 같이 마케팅 경쟁에 의존하여 회원을 유인하고, 가맹점 수수료에 수익을 의존하는 구태에 머무른다면
 -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도태되는 비극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.
- 카드사도 보다 혁신적이고 소비자 친화적인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경주해야 합니다.
 - 지난 4.1일 「금융혁신법」이 시행되면서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와 핀테크기업의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.

- 일부 카드사도 혁신서비스를 신청하여 우선심사 대상에 선정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.*

* (신한카드) 신용카드 기반의 송금서비스,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

* (비씨카드) QR코드를 통한 노점상 등 사업자 미등록 판매자의 신용카드 간편결제

- 이번에 신청한 개인간 카드결제는 카드깡 등 우려로 오랫동안 허용하지 않았으나, 부작용 방지장치를 마련하는 조건 하에서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 될 수 있는지 시험해 볼 계획입니다.
- 앞으로도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하여 도전과 실험의 장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현함으로써 금융혁신을 마음껏 창출해 내시기를 기대합니다.